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토마 사도

루가 제 2주일

성 이에로테오스 아테네 주교, 성 돔니나 순교자  
제 8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8조 부활찬양송 / 82, A 218

•주일 입당송 / 14, A 42

•주교 찬양송 / 84, B 263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고린토 후 6:16~7:1 / 봉독서 265

•복음경 : 루가 6:31~36 / 122, B 6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 성 토마 사도

우리 교회에서 10월 6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성 토마 사도는 열두 사도들 가운데 일곱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말씀에서 성 사도 토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 토마 사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

다. 다른 사도들이 토마 사도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요한20:25)라고 이야기했을 때 토마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여드레 뒤에 사도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고, 그 때 비로소 토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20:28)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위대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성 사도 토마의 사건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루가 6:35)

국어사전에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이며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또한 원한이 맺힐 정도로 미워서 마주 보기도 싫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못 견딜 만큼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생활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매 식사시간에 또한 새벽부터 밤중까지 드리는 모든 기도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특히 성찬예배에서도 성만찬 직전에 주기도문을 외운다.

이토록 모든 기도시간에 드리는 주님의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간청의 내용이 있다.

오늘 주일 복음의 말씀에도 천국 시민의 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 주어라.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루가 6:35)’

즉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천국의 시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모든 영적 삶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기도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기도생활 없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더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행동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 파이스코스 성인(1924-1994)이 들려주는 실제 이야기(1)



한 번은 그리스계 미국인 의사 한 사람이 이 곳 아토스산을 찾아왔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정교인이었지만 신앙에 별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도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으며, 그것에 대해 저와 의논하고자 왔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느 날 밤 자기 아파트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눈부시게 밝은 빛이 그의 온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의 천장과 (그의

집) 위쪽의 40층이나 되는 모든 집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그는 고층아파트의 저층에 살았는가 봅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빛으로 목욕을 한 듯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했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창조되지 않은 (하느님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토록 드물고 엄청난 축복을 받기까지 이 의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가사일을 하는데 지쳤어요. 밖으로 나가서 좀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였고, 밤마다 남편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자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빼고) 친구들과하고만 외출을 하고 싶어요.” 그 의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친구들도 말고) 나 혼자서만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내에게 약간의 돈과 자동차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혼자 살수 있도록 아파트를 하나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윽고 자기 친구들을 그리로 초대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아내에게 조언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대교구

#### ➡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 축일

지난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 축일 예배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아가티 수녀와 발사모 사모 및 몇몇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원에 한국정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한 가운데 축일을 보냈지만, 내년에는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으로 함께 수도원에서 축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헌금 감사합니다

울산 성당의 몇몇 신자 분들께서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을 위해 1,800,000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복음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별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 예금주 : 한국정교회유지재단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19일 토요일에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의 딸 데스피나 우소영과 사위 일라리온 김용한의 아들 김다운이 세례성사를 통해 안드레아 세례명으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